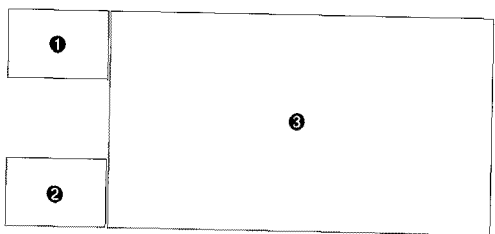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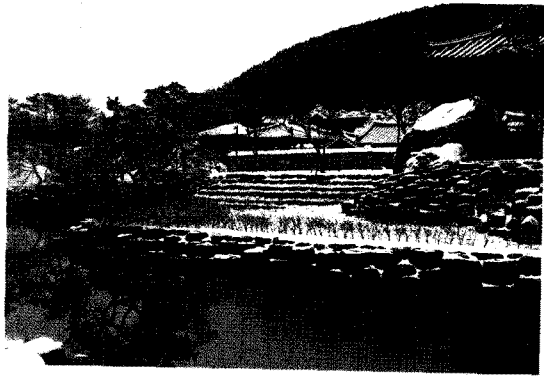




# 2008년

# 안전관리자 ·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 ① 신라밀레니엄파크의 설경
- ② 경주 풍코드 호텔 전경
- ③ 신라밀레니엄파크 관람 후 힘찬 2008을 다짐하고 있는 삼부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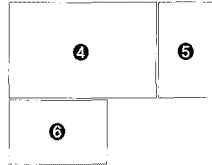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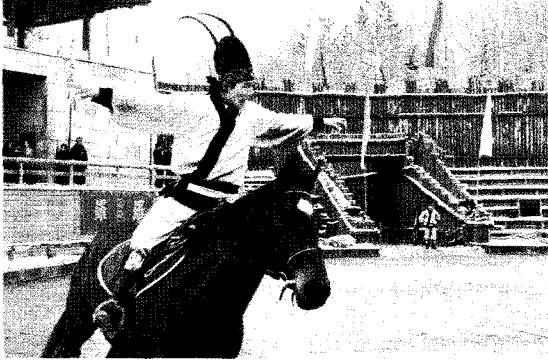
우리협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삼부토건(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주 콩코드 호텔에서 개최된 2008 삼부토건(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은 입소식에 이어 남광토건(주) 장석하 부장의 동종업계 재해사례 연구 강의를 시작으로 초빙강사인 한국산업안전공단 오병한 차장에 의한 KOSHA18001 이해 및 위험성평가/실습 등으로 제 1일차 교육이 진행되었고, 제2일차 교육 일정에서는

2007년 실적 및 '08년 중점추진계획/대책에 대해 삼부토건(주) 최용호 부장의 중점적인 강의내용과 고려개발(주) 박진선 부장의 KOSHA 18001 적용사례 강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은 오전 교육 후 경주 콩코드 호텔 인근 삼부그룹에서 운영하는 SMP(신라밀레니엄파크) 관람과 밀레니엄파크 대공연장에서의 화랑무술, 마상무술 시범 등의 관람을 통해 새롭게 느끼는 역사의 향기에 뿌듯함을 더했다.

시공을 초월한 복합·체험형 역사 테마파크 신라밀레





④ ⑤ 신라밀레니엄파크 대공연장에서 화랑무술과 마상무술 시범을 관람하고 있는 교육 참석자들  
⑥ 화랑무술 시범을 보이고 있는 신라밀레니엄파크 화랑무술 시범단

니엄파크는 초대형 특수효과 공연 및 마상무예 스텐트 공연이 함께하는 Dynamic 역사문화체험 마을로 신라라는 확실한 테마로 운영요원들이 신라시대 복장을 입고 활동하고 최첨단 기술을 통한 초대형 공연, 대가들의 고증이 끝난 신라마을 체험, 문예마을 체험등을 통해 1200년 전 신라를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잡고 있다.

SMP 관람 후 이어진 오후 교육은 김&장법률사무소서영삼 전문위원의 중대재해 처리 요령,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박경태 전문위원의 KOSHA18001구축모델 강의가 있었으며, 2일차 마지막 교육으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안태호 전문위원의 현장 안전점검 사례분석 특강으로 마무리 되었다.

한편, 이번 직무교육에 참석한 삼부토건(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들은 2일차 교육 후 결의문 채택을 통해

안전 최우선 무재해 삼부토건(주)을 슬선수범해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 채택 후 뷔페식 홀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임원과의 대화 및 안전인 단합의 밤 행사에서는 홍학표 토목본부장과 김영호 노조위원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홍학표 토목본부장은 격려사를 통해 삼부 60년의 찬란한 결실을 맺는 한해를 만들 것이며, 향후 초일류 삼부를 향해 정진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고, 김영호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적극적인 변신 노력을 촉구하고 열심히 자기개발을 함으로서 자신의 미래는 물론 회사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데 노조 집행부가 힘을 더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하였다.

삼부토건(주)의 2008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은 3일차 삼부토건(주) 김상귀 이사의 2008년 전사전 수주전략 특강과 열린 노무법인 전해선 노무사의 '08년 달라지는 노동행정과 재해처리 요령'에 이어 교양강좌와 평가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글/사진 · Willy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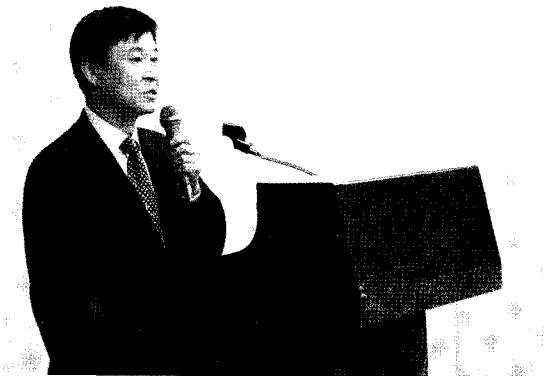
삼부토건주식회사

# 2008년도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Work Shop

일시: 2008. 1. 28 ~ 2008. 1. 30



- ⑦ 격려사를 통해 초일류 삼부토건을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하고 있는 홍학표 토목본부장
- ⑧ 현장 안전점검 사례분석 특강중인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 안태호 전문위원
- ⑨ 안전 최우선 무재해 삼부토건(주)을 숭선수범해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 결의문 선서
- ⑩ 2008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Work Shop 교육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삼부토건 최용호 부장
- ⑪ 김명조 부사장과 함께 무재해 2008년을 다지며 기념촬영 하고 있는 삼부토건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사진제공: 기술지도부)